

활기찬 봄 화랑가 佛畵展 등 다양

주제·개성 뚜렷... 기쁨만한 곳

봄을 맞은 화랑가에 생기가 돈다. 우리 전통 미술의 한 분야인 풍속화를 비롯해 불화, 조각, 구상작품 등 다양한 전시들이 관람객을 기다린다. 저마다 주제와 개성이 뚜렷한 전시회를 가운데 가볼만한 곳을 소개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풍속화전': 단원 김홍도, 혜원 신윤복을 비롯한 조선시대 풍속화가들의 작품 120여점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기념해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조선시대 풍속화전'이 바로 그것. 이번 특별전은 이전에는 풍속화로 분류되지 않았던 궁중의 행사나 선비 관리들의 공식 모임을 그린 기록화, 갑오농민전쟁을 풍속화에 포함시켰다. 풍속화를 풍의로 해석, 그림의 배경이 되는 시대상이 반영된 점에 주목할 결과로 보인다. '선정과 태평', '어취(어취)와 풍류', '생업과 휴식', '신앙과 기복'이라는 4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전시 가운데 불자들이 눈여겨 볼만 부분은 신앙과 기복이다. '보석사 갑오농민전쟁' 무회기(無會記) 갑오농민전쟁 등 전시 작품은 2점씩

에 안 되지만, 불화인 김포경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보물 527호 '단원풍속화첩'에 담긴 '씨름' 등 눈에 익은 풍속화는 물론 소나무 아래서 두 승려가 담소하는 모습을 그린 '사미승' (미군후 작), 승려가 길거리에서 정경을 벌려 놓고 탁발하는 장면을 담은 '점 보세요' (작자 미상)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보는 즐거움도 쏙쏙하다. 02-398-5138

●불화가 고향을 '삼라만상전': 화려한 채색과 섬세한 선묘 거기에 기존 불화와 차별되는 현대적 회화미를 추구해 온 불화가 고향을 위한 '삼라만상전'이 20일~26일 조계사내 문화교육관에서 열린다.

불교신문 기획 초대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고씨는 전통회화기법에 현대적 감성을 표출한 금니 선화로 자신만의 독특한 불화의 세계를 펼쳐보인다.

'바람소리' '세상 속으로' 등 50여점의 작품들은 자아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해와 달, 별과 바람, 우주와 자연에 이르는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담아낸다. 민족의 영혼인 통일에 대한



열망을 그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의 작품도 눈여겨 볼만하다. 02-730-4488

●이대박물관 '여성성의 재현전': 이화여대 박물관이 5일~6월 29일 여는 특별전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전'은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20세기 한국미술을 되돌아보는 대형 기획 전시이다.

43명 작가의 작품이 선보이는 1부 '여성의 이미지와 공간'에는 전통적 여성상을 그린 그림 등을 비롯해 장우성의 '승무', 최영림의 '불심', 박성광의 '무당' 처럼 종교적인 공한의 공간에 여성을 배치한 작품들도 선보인다.

20여명의 여성작가가 동참한 2부 '여성적 소재와 기법'에는 기존의 남성적 시각과 작가 자신의 여성적 체험 사이를 오가는 양성적 기호를

나타내는 작품들이 다수 선보인다. 02-3277-3152

●유리지 조각전 '아름다운 삶의 한 형식': 갤러리 현대에서 12일까지 열리는 조각가 유리지씨(서울대 미대교수)의 '아름다운 삶의 한 형식'은 장례에 사용되는 물품들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 독특한 전시이다.

향로, 촛대 등의 제사용품과 괘호, 사리함, 상충, 상여 등의 장례 용품이 그 기능과 미적 장식적 효과에 비중을 두어 제작됐다. '괄호-삼죽' '오태양속'에 산다는 불멸의 세', '유물함-기시(觀視)' 등의 작품들은 마치 인간의 삶과 사후의 세계가 영원의 세계에서 윤회하고 회귀하듯, 그 기능과 예술성이 함께 호흡하고 교감하는 경지를 표현하고 있다. 02-734-6111

문화 담당= 이은자 기자 elee@buddhacia.com

500년 묵은 씨앗서 연꽃 피웠다

미 과학자들 배양성공

홍합물에 살면서도 두려움에 물들지 않아 불교의 상징이 된 연꽃. 또한 연꽃의 열매는 5백년이 지나도 꽃을 피운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이 사실임이 확인됐다. (사진)

미 연구진은 중국 동북부 시파오지 지역의 말라붙은 연꽃 바다에서 채취



공했으며 방사성 탄소로 연대를 측정, 500년 전 종자임을 밝혀냈다.

佛指사리 대만 전시 수십만 운집



중국의 국보이자 유네스코가 '세계 9대 기적'으로 부른 부처님 손가락 진신 사리(眞身佛指舍利)가 중국 산시성(陝西省) 시안(西安)의 법문사(法門寺)에서 2월 23일 대만으로 옮겨져 이틀간 수십만명이 이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대만당국은 타이베이(臺北)에서는 사할 대신 넓은 국립대만대학 체육관에 사리를 봉행했으며, 31일 시안으로 돌아가기 전 타이완(臺灣), 가오슝(高雄), 타이중(臺中) 등 대만 주요 도시들에서 전시된다. 사진은 2월 23일 이운회포 장관.



한소리 풍물단은 대구지역 불자가정과 기업 등 20여곳을 돌며 행복을 기원하는 풍물공연을 가졌다. 사진제공=순법천 대구지사장

"풍물패 공연 통해 불교 포교"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한소리 풍물단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지회장 혜계 스님 법령제회 '한소리 풍물단'은 2월 7일~3일까지 6회에 걸쳐 지역 불자가정과 불자기업 등 20여 곳을 돌며 올 한해의 발전과 행복을 기원하는 풍물공연을 상행리에 마쳤다. 지난해 3월 결성된 한소리 풍물단은 40대~60대 초반의 남성불자들이 구성된 순수 문화신행모임으로

그동안 부처님 오신날과 동지법회 등 각종 불교행사에서 우리 전통 국악인 풍물 공연 활동을 해왔다. 한소리 풍물단 김태오 단장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실력을 연마하여 지역의 각종 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해, 문화활동을 통한 불교 포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의회대표 법타, 이하 평불협가 남북 통일을 기원하고 결사아동을 돕기 위한 남북한 통일음악제 를 17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연다. 북한 기아문제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을 모으고 민간차원의 통일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된 이

남북한 통일음악회 17일 세종문화회관

남 음악회는 법현스님의 불로연주, 김중자 무용단의 북을림 연주, 소프라노 백지영과 테너 박성원의 가곡, 민요 공연 등 다채로운 프

그램으로 진행된다. 이외에 가수 최진희, 정수라, 송대관, 설은도, 이동원 등도 출연. 남북한 대중가요와 민요를 열창한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전액 한해 도 사리현 금강국수공장 가동 등 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02-732-5558.

세상에! 이렇게 좋은 종무관리가 공짜 라니..!

상황 종무 관리 프로그램 무료 보급!
크기일꾼으로 2만인원을 내시반 획기적인 종무관리가 됩니다.

상황모바일버전 이래서 좋다!

- ▶ 문자메세지 발송 - 한번에 수천명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 ▶ E-mail 발송 - 법인·안내문 등 E-mail 발송 가능
- ▶ 음성·음악·벨소리 전송 - 모닝콜 기능
- ▶ 기존 데이터 자동 변환
- ▶ 각종 인쇄물 글자 크기 조절 가능
- ▶ 실시간 불교뉴스, 각종단 기사판 열람
- ▶ 관리자 없이 자동 업그레이드
- ▶ 사할과 인도기경의 인터넷 네트워크 영상

타 종무관리 프로그램과의 비교

| 구분 | 상황종무관리 | G | D | K |
|-------|-----------|-------|-------|---------|
| 가격 | 무료 | 320만원 | 150만원 | 무료 |
| 관제 | 무료 | 2만명/월 | 3만명/월 | 20만명/국역 |
| 업그레이드 | 무료 | 유료 | 유료 | 유료 |
| 인터넷기능 | 불교뉴스, 기사판 | 없음 | 없음 | 없음 |
| 모바일버전 | 30명/건당 | 가능없음 | 가능없음 | 가능없음 |



상황 종무관리 설치 방법

- 전화주문 : 02)722-4162(현대불교신문사)
- ☺
- 통신료 20만원 선납금 납입 : 국민은행 006-01-0773-240(현대불교신문사)
- ☺
- 우편으로 CD받기
- ☺
- 안내문 따라 설치
- ☺
- 인증받기 02)365-5933(지우커뮤니케이션)
- ☺
- 기존의 D/B 자동 이전